

보도

SPACE21 2단계 글로벌 타워 지연 공공도로 둘러싼 입장 차 원인

김수혁 기자 sherko@khu.ac.kr

【서울】SPACE21 사업이 2단계로 접어들었지만 학교와 동대문구의 불협화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 마무리와 2단계 사업 시작 양 쪽에서 크고 작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SPACE21 2단계 사업은 크게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두 개의 대규모 신축 사업으로 구분된다. 문과대, 정경대, 음악대, 외국어대가 포함된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됐거나 막바지에 이르렀고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신축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다. 국제캠퍼스 미래과학관 신축 사업은 구 야구장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캠퍼스 글로벌 타워 착공 계획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노천극장 자리에 들어서게 될 글로벌 타워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다. 지난 2013년 발표된 초기 SPACE21 계획에도 글로벌 타워는 이미 포함돼 있었으나 행복기숙사 아름답, 한의이과·간호대 단과대학동 건설로 구성된 1단계 신축 사업에선 제외됐다. 2단계 사업추진단의 활동 초입이었던 지난해 11월에는 예산 문제로 기존 10층으로 계획된 규모가 7층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학교 자체적인 예산 및 설계 문제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청과의 마찰도 글로벌 타워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한의·이과·간호대 단과대학동과 행복기숙사 아름답 건물 역시 여전히 임

시사용승인 상태로, 구청의 정식 사용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그간 공공도로로 사용하던 경희대로 부지 일부가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사유지라고 인정하며 동대문구청에게 그간의 부당이득금과 앞으로의 부지 사용료를 경희학원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구청은 2017년 8월 16일,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기재했던 신축건물들의 건축인허가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정식 사용승인을 반려했다. 건물 접근성을 확보하고 예상 통행량을 감당하기 위해 공공도로가 필요하지만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희대로가 공공도로 성격에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기숙사 입주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사용승인 불가 통보가 나오자 논란과 불안감이 확대됐다. 당시 제49대 총학생회는 구청에 사용승인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입주를 이틀 앞두고 구청이 1년의 임시사용승인 조치를 취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구청은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면서 학교에 교통영향평가 기준 충족을 위한 공공도로 확보와 기숙사 건립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은 진전을 봤지만 2016년 경희대로 부지 소유권 판결에서 촉발된 공공도로 확보 건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아름답과 신축단과 대학동 임시사용승인이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만료됐지만 정식 사용승인은 받아내지 못했고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2년 연장하는데 그쳤다. 당시 학교는 2020년 만기가 다가올 때까지 문제를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도 법인과 구청은 경희대로 부지 사용료와 도로 성격에 대한 입장 차를 좁혀줄 수 없었고 있다. 양 측은 지난해 여름원 사용승인 반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면담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명확한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법인 사무처 조병렬 계장은 “올해 초에도 경희대로 문제로 구청과 두 차례 정도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추후 후속 협상이 계획돼 있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결정권자들 사이의 논의가 진척되지 못함에 따라 글로벌 타워 신축 사업은 실무 선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타워 건축인허가를 위해서는 1단계 신축 건물과 마찬가지로 구청이 제시한 공공도로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추진단 김태우 계장은 “당초 글로벌 타워와 글로벌 광장은 국제캠 미래과학관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실시설계에 착수했지만 각종 인허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현재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적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 공간 부족, 불법주정차에 신음하는 캠퍼스

홍연지 기자 lotuspond@khu.ac.kr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캠퍼스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총무관리처가 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지난 4월부터 기존 시행되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 단속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며,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지난 3월부터 불법주정차 5회 이상 위반 시 다음 학기 정기주차권 등록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 없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지는 미지수다.

서울캠 불법 주정차의 주원인은 수요에 비해 현재까지 부족한 주차공간이었다. 현재 서울캠에는 푸른솔 문화관 지하주차장, 신축단과대학동 주차장, 평화의 전당 등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총무관리처 자료에 따르면 서울캠의 캠퍼스 내 주차면수는 1,071면이며 정기주차권 등록차량은 약 2,160대, 하루 차량 출입은 약 3,000대로 주차면수에 비해 차량출입대수가 현저하게 많은 상황이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안전형 계장은 “푸른솔 문화관 주차장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이용을 꺼린다”며 불법 주정차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을 지적했다.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는 학교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일정 부분 용인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생기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실제로 지난 4월 23일, 서울캠 아름답 앞에서 운전자의 불법주정차 및 전방주시 부주의로 보행 중인 학생 2명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주차공간을 찾다가 보행 중인 학생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아름답 주변 불법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을 통한 단속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 계장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캠퍼스 환경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엄격히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티커 단속’ 강화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구성원은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 증설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 물리적인 공간을 늘릴 수는 없다.

한편 국제캠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5회 적발 시 다음 학기 정기권 등록 제한이 그 내용이다. 국제캠은 서울캠과 달리 주차면의 절대적인 부족보다 교직원 주차장에 학생이 주차해 단속되는 경우가 잦다. 국제캠 주차관리사무소 한재현 소장은 “주차위반 제재수단이 차량등록뿐이라 주차위반이 많이 일어난다”며 “주차위반을 상습적으로 한다고 해도 벌금을 물리거나 주차 금지를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몇몇 학생은 아예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고 다니며 계속 위반을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씨는 “학생과 교직원 주차구역이 나뉘져 학생들만 멀리 주차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 주차구역과 교직원 주차구역이 통합되면 현재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주차위반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무관리처 측은 “최대한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급적 구성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이 용 시에는 차량 요일제에 적극 동참해주시어 차량 출입량을 줄이는 것이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 Kyung Hee Repertory Dance Project

일시 : 2019. 5. 21(화) ~ 24(금)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 KHU, Seoul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후원 : 무용학부 51대학생회 · 문화아이템팩토리센터 Contact : 02)961.0539

주 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19 경희 사랑 한마음 걷기 대회

2019년 6월 1일(토) 10:00 ~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 길

참가대상	경희 구성원 및 누구나
참가비	1만원 (참가자 명의로 전액 발전기금 기부)
참가방법	온라인 신청 (선착순 100명 내외)
증정	점심 및 음료 제공, 참가자 기념품, 행운권 추첨 등
걷기코스	약 7km (우이 출발~석굴암~우이 도착)
기타사항	홈페이지(khu.communication.ac.kr) 참조

코한 우이령길 양구
석굴암
유곡길, 저수지
오봉산 전망대
대전차 장애물
우이담방자갈센터
우이 우이령길 양구

후원